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6 월 16 일(다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 소서.

[제1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시편 8,4-5.6-7.8-9(◎ 2 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 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 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 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요한 16,12-15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 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83	510, 512	159,165	81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의 신비

정윤경 율리안나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막내아들 최규하 다니엘 신부님의 삼위일체 대축일 강론을 옮겨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크게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밤중에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며칠 동안 학교에 빠질 수 있어서 참으로 좋긴 하였지만 말입니다.
분명 아팠던 기억인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지금 그 때를 떠올리면 제 마음은 설명하지 못할 행복함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제 생애 가장 값진 선물을 그 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언제나 제 곁에 계시던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제가 아파 신음할 때, 제 곁에는 항상 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며 앉아계셨습니다.
저는 몸으로 그 병을 앓았지만, 마음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옆에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모두 대신 떠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지만,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은 주어본 적도 없고, 받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워낙 물질주의로 흘러가다보니까, 그리고 워낙 바쁘게들 살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다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일 하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을, 정신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값비싼 선물로 벌충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은 값비싼 선물로 인해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선물일지라도, 그 선물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위격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가지 존재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당신 친히 우리를 정성스럽게 빚어내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각자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곱게 빚어낸 우리가 죄에 신음하고 고통에 시달리자, 몸소 인간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정처없이 방황하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느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없었더라면, 오직 하느님 홀로 존재하셨더라면, 그 분은 그냥 한분이신 하느님일 뿐이지, 굳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취하지 않으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는 하느님의 발버둥이야말로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결국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절대자 하느님은 몸소 당신 자신을 굽히시고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진정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몸과 마음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매순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든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신부님 영명축일 겸 사제수품 기념:** 6월 30 일 신부님 영명축일 겸 사제수품 기념해서 구역별•단체별•개인별로 영적•물적선물 준비해주시고, 이를 위한 전체 친교준비는 사목봉사자분들이 합니다.

■ **Guatemala mission trip Donation:** 총 금액 $3,090.00 모였습니다.

박기승 레오 가정, 박건 알로이시오 가정, 이정애 루피나, 권금자 소피아, 요셉회, 공정입 효주 아네스, 강주현 가브리엘라, 장은주 율리안나, 공소: 김상규 빅토리노, 류인옥 모니카, 익명 한분 외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성당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을 비롯하여, 윤성숙 레지나, 조용진 마태오, 이신애 율리아 세실리아, 이미애 조안나, 조아라 안젤라, 조슬기 글라라, 강선유 로사, 박민지 프란체스카 총 9명이 선교가 있는 동안에도 잘 마치고 돌아올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제관 식기세척기:** 사제관 주방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식기 세척기 구입과 설치에 수고해주신 이명근 마지아 전 사목회장님, 박현걸 요한 사회사목분과장님과 전광식 바오로 시설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Holy Angels 본당 골프대회**

필라델피아 Holy Angels 본당 골프대회가 다음 주 주일인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PineCrest Country Club 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시: 6월 23일 오후 1시

가격: 그린피 100불 + 참가비10불 = 110불

주소: 101 Country Club Dr, Lansdale, PA 19446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6월16일 이전까지 성함과 핸디를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북미주 성령대회(24차 미동북부)**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 오전 9시-오후 9시, 7월 21일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Felician College 262 S. Main St, Lodi, NJ 07644

강사, 통역: Ivo Pavic (이보 파비치) 신부, 남기옥(마르타)국제 통역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봉사회(crscne)

Tel: 201 947 4717

■ **평일 미사: 6**월 19일, 20일, 26일, 27일 평일 미사 없습니다.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순번:** 6월16일 민현우 가정, 6월23일 박건 가정, 6월30일 박기승 가정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St. Paul's 성당 청소:** 6월 23일 4구역, 7월7일 5구역, 7월 28일 6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정윤경 율리안나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 이신애 율리아 세실리아, 조아라 안젤라, 이미애 요안나, 조슬기 클레어 , 강선유 로사, 조진 마태오, 박민지 프란체스카, 윤성숙 레지나,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가정, 민현우 예로니모 안선자 데레사 가정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헌금 $376.00, **감사헌금**: 익명 200.00

교무금: 정지상 6월, 박기승 5, 6월, 조원준 6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사 전 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예물봉헌**	**복사**	**친교**
6 월 16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윤성숙	민현우 안선자	강선유 한 빈	이미애 조슬기	민현우 가정
6 월 23 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박상진	박 건 한미애	이혜민 송민우	박 건 한미애	박 건 가정
6 월 30 일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김진숙	김진환 박재훈	박민지 민서 Dickenson	박기승 윤영실	전체친교
7 월 7 일	**연중 제 14 주일**	공정임	박상진 최분임	김혜민 엄재원	박상진 최분임	박상진 가정